

성경이 가르쳐 주는

구원에 관한 기초

제 3 과

이전에 공부한 내용 복습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겉 모습만, 주변 모습만, 사람들이 아는 그런 것들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의 마음속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이 몸으로 행한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심판이 행해집니다. 우리는 진리에 의거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과에서 우리는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도 살펴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자기의 공로로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평생 내내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한 조목, 율법의 한 조목만 어겨도 모든 율법에 대해 유죄가 된다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으므로 사람은 유죄인 것입니다.

둘째 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룹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룹, 이렇게 두 그룹입니다. 한 쪽은 하나님께 속하고 다른 쪽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그룹을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얼마를 살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잃어버린**,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관계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구출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을 바르지 않은, **불의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즉, **의로운** 사람으로 보십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으로 보시나, 관계가 있는 사람은 비록 하나님께 잘못은 하였지만 **용서받은** 사람으로 보십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이며,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의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되돌려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기초들

관계가 없음	관계가 있음
1. 잃어 버림 눅 19:10	1. 구출됨 롬 10:13
2. 불의함 고전 6:9-10 롬 3:10	2. 의로움 롬 5:19
3. 용서받지 못함 롬 4:6-8	3. 용서받음 엡 1:7
4. 원수임 롬 5:10	4. 화해함 골 1:20-22
5. 정죄받음 요 3:18	5. 의롭게 됨 롬 5:1,9
6. 진노 아래 롬 5:9, 1:18 롬 2:6	6. 받아 주심 엡 1:6
7. 지옥 계 21:8	7. 천국 살전 4:16-17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정죄받았고** 그 앞에서 유죄인 채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올바르다고 해주시거나 올바르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정죄 아래 있을뿐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그 진노와 화가 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은 받아 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부르는 장소로 향하고 있으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부르는 장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된 일곱 개의 용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모든 것들, 즉, 한 사람의 일생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것들은 당신이 할 수 있거나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올바르게 선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당신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 하나님과 화해하게끔 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당신에게 생긴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셔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고서 우리는 한동안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침례를 받는다거나, 교회에 출석한다거나, 기도나, 헌금이나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뭐라고 하셔야만 하는지를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당신과 제가 행하는 모든 선행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게끔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심

성경 기록들을 살펴보면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모두 하나님과 문제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으며, 어느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성경은 분명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번 공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 용서받은 사람들, 의롭게 된 사람들, 올바르게 된 사람들, 천국을 향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고요.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자기 집으로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을 자기 집으로 가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로 데려다 줄 무슨 방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 자신의 선행, 우리 자신의 수고,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닌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도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확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과에서 공부할 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제공해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 말입니다.

복 음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 중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살펴 보고자 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방도, 사람을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관계가 있는 상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도란 복음에 의한 것입니다. **로마서 1:16**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_____ 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 다."

1. 하나님의 권능

첫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권능이란 말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단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에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옮기는 데 사용되는 강력한 폭발물입니다.

2.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울이 이 복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구원(구출)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사용했던 것

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 구원을 제가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구출하십니까? **로마서 1:16** 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에 의해 하나님께서 구출하신다고요.

3. 침례(또는 세례)가 아님

복음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관계가 있는 상태로 옮겨 주는 방도라면, 그리고 복음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다이내마이트**라면, 다음으로 우리는 무엇이 복음인지, 그리고 무엇이 복음이 아닌 것인지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7** 에서 바울은 복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_____ 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때 열거한 일들 중의 하나가 스스로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만들려고 침례(세례)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침례(세례)를 받은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침례가 죄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천국에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침례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관계가 있는 상태로 옮겨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침례를 주라고 보내

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어졌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복음과 침례는 두 가지 다른, 별개의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관련이 없습니다.

바울은 침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는 침례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침례가 복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복음의 일부인 것도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보는지, 또는 당신이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살펴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물어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침례는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복음입니까?

4.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심

고린도전서 15:1-4,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_____ 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_____ 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_____ 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 복음인지를 분명하게 펼쳐 보여 줍니다. 이 구절들을 하나씩 보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보도록 합시다.

2 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이라는 말을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가는 잃어버리고, 또 다시 구원을 받았다가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만일 당신이 복음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도로 복음을 취소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그는 아주 단순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복음을 거절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일단 이해하기만 하면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결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알고 그분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당신은 다시는 그분을 떠날 수 없습니다.

5. 우리를 대신하심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바울이 **3-4 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살아나심이라고 합니다. 복음-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셋째 날에 죽은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좋은 소식이죠? 그 이유는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죄받았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궁극적으로는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모두 범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롱하면서 노골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살

며 자기 자신의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구출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구출되는 걸까요?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관계가 있는 상태로 옮겨 갑니까? 누군가가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대가가 지불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죄에 대해 어떻게 대가가 지불되는 건가요? 당신 자신의 죄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당신이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당신의 죄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방도를 취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방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대신하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어떤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5천 달러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다른 누가 걸어 올라와서 현금을 꺼내어 당신을 위해 벌금을 지불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벌금 납부고지서에 "전액 지불 필"이라는 도장을 찍어줄 것입니다. 법은 더 이상 상환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청

구도 당신에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쫓아와서 "당신은 이 돈을 물어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죄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 즉, 우리를 되사신 분이 되셨습니다.

6. 성경 기록대로

위의 구절 중에서 우리가 살펴 보기 원하는 또다른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기록대로**" 묻히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 기록대로**"라는 말이 왜 이처럼 중요한 걸까요? 그것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것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거 알아? 내 생각에는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 십자가 위에서 죽은 후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서 인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거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결코 그런 식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세심히 계획된 것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계획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성

경의 바로 시작 부분에 있는 창세기 책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내내, 하나님께서는 일련의 예언들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세대들을 따라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리스도가 오시며,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실 것인지, 그리고 세상의 죄들을 위해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들을 주셨습니다. 이 예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성경 기록대로**" 하고자 하시는 것을 위한 무대를 설치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럼요. 아주 큰 차이가 있지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메시아이시라면, 그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당신의 죄들과 제 죄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시라면, 그분은 구약 성경에 열거된 메시아에 대한 모든 자격 요건들을 충족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옛날로 되돌아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이 메시아와 관련된 모든 예언들을 찾아보고, 그 예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자격 요건들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시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분께서는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성경이 말하는지 그 이유입니다. 그분께서는 "**성경 기록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은 성경 기록대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불쑥 나타나셔서 "예수가 죽을 것이고, 그래서 그가 세

상의 죄를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줄곧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죄들과 저의 죄들을 위해 죽으실 것은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단지 일시적 기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들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바로 그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안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사람들이 하는 일들 중의 하나는 가능한 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게끔 하고 또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선행들은 보시고 자기들이 행하는 나쁜 일들은 보아넘겨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는 저주받는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8-14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네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율법 책에 기록된

_____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_____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_____ 가 되사 율법의 _____ 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 단어는 바르게 되었다는 뜻이며,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성경이 사용하는 동일한 용어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순종적으로 됨으로써, 선한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8 절을 읽어보면 그는 복음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보다 아주 오래 전에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으심, 묻히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날로 돌아가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살고 죽기 위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좋

은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처리할 메시아를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세한 내용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들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알 정도로 충분히 복음을 이해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by faith) 하나님을 믿었고(believed) 이로서 그는 하나님과 바르고 의로운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도 의롭게 되는 방법입니다.

10 절에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라고 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십계명-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은 저주받습니다. 이 저주는 당신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옵니다. 평생에 거짓말 한 번 한 적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 평생에 단 하나의 거짓말만 해도 당신은 아홉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야고보서 2:10** 에서 율법의 한 조목에서 죄를 지으면 율법 전체에 대해 유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기준은 잊어버리고 우리 방식대로 보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으로부터 그 아래로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작은 죄로 보고 큰 일로 여기지 않고 용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당신과 제가 심판을 행하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 표준대로 심판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실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

나님의 진리는 당신이 율법의 한 조목을 어기면, 율법 모두에 대해 유죄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정죄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정죄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옥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10 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만일 당신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면, 당신은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 우리가 모두 저주받았다고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천국에 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모두 저주 아래 있으며 희망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선한 사람이 됨으로써 그리고 당신의 선행이 당신의 악행보다 더 무게가 많이 나가기를 바램으로써 천국에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그것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저주받았으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답입니까?

그 답은 **11 절과 12 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구원은 율법에 의해 되지 않습니다. 구원-즉, 하나님과 관계가 주어지는 것, 용서받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해 주신 것에 당신의 신뢰를 둠으

로써 됩니다. 구원은 당신 자신의 선행으로 하기를 포기하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들이시도록 만들려고 노력하기를 포기하는 데에서,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용서 속에서 안식하기로 결정하는 데에서 찾아집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3 절**에서 이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 땅으로 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시려고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나서 바울은 **14 절**에서 말합니다. 어느 날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도 믿음으로써,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날을 내다 보았으며, 우리는 그 날을 뒤돌아 보고 믿음으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습니다.

예시(豫示, foreshadow)하심

우리는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오래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 발견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첫 언급을 **창세기 3:15**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담

과 이브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고서 동산에서 범죄하였는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만들어 주고자 하셨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창 3:21 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 성경의 이 곳에 예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시란 "사진"을 의미합니다. 만일 제가 당신에게 제 가족 사진을 보여 주려고 한다면, 저는 "여기 제 가족이 있습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당신은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할 것입니다. 그 사진은 내 가족이 아니며, 내 가족을 반영할 뿐입니다. 그것은 내 가족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실물을 가리킵니다. 내 가족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진은 내 가족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게 해 주지만, 그 사진이 내 가족은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그 사진을 검토하고 나서 어느 날 내 가족 중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당신은 이 사진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즉각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일의 사진을 구약 성경에서 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동물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셨을 때, 그들에게 줄 가죽을 얻기 위해 동물을 죽이셔야 했습니다. 동물을 죽일 때 피가 흘러져야 합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입히기 위해

동물들을 죽인다는 것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실 사실의 예시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대신해서 동물이 죽어야 했듯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창세기 22 장에서 우리는 또다른 예시-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또다른 사건-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 보려고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하인들과 이삭과 나무와 불을 가지고 그 산으로 떠났습니다. 이삭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자기들이 빠뜨렸다는 것을 깨닫고는 자기 아버지에게 번제 헌물에 쓸 어린양은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이 창세기 22:8 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야, 번제 헌물로 쓸 어린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자기가 말해야 했던 것을 충분히 이해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그 말로써 하나님께서 의미하신 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압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비하신다"는 것을 의미했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예비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물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

은 정확히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신의 죄들과 저의 죄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려고 사람의 육신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제단 위에 놓고 하늘을 향해 칼을 치켜들고는 자기 아들의 가슴을 찔러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22:13** 을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덩불에 걸린 숫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줄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목숨을 구하고 덩불에 뿔이 걸린 숫양이 붙잡혀서 이삭 대신 희생물로 바쳐졌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당신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또하나의 사진-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예시-입니다.

출애굽기 12 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시하는 또하나의 구약 성경 사진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가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집트에 많은 재앙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으로서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처음난 모든 것들을 죽이실 것이며 그런 다음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보내 줄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다음 **출애굽기 12:21-23** 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지침들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가서 너희 가족들에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양을 취하여 그 유월절 어린양을 죽이고 우슬 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인방과 양 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문의 인방과 양 옆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가족마다 어린양 한 마리를 취해서, 그 어린양을 죽이고 대야에 그 피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슬초 한 묶음을 취하고 그것을 그 피에 적셔서 상인방-위의 문기둥-과 양옆 문기둥들에 그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아침까지 집 안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한밤중에 그 땅을 지나갔습니다. 그 천사는 이집트 땅의 집 중에서 상인방과 양옆 문기둥들에 그 피가 없는 모든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그 가족의 처음 난 남자 아이와 그들의 모든 동물들의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들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런 일을 하실 것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하였습니다. 어린양은 죽어야 했으며, 그래서 그 피를 양옆 문기둥들과 상인방에 바를 수 있었고,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으며, 처음 난 자가 살 수 있었습니다. 어린양이 처음 난 자 대신 죽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하신 일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생명과 제 생명에 그분의 피를 발라서, 우리가 심판받으러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셔도 하나님께서 의로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구약 성경의 사진들-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는 예시들-이 아주 많이 있지만 우리는 몇 개의 하이라이트들만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16:15-16** 에 있는 속죄일에서 다음 사진을 봅시다. 속죄일은 제사장이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희생물을 드리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 뒤에 그는 또 백성을 위한 죄 헌물의 염소를 잡아 그것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소의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행하여 궁핍의 자리 위와 궁핍의 자리 앞에 그것을 뿌릴지니 곧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범법들로 인해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부정함 속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 머무는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할지니라."

일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동물을 죽이고, 그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가서, 공홀의 자리 위에 그 피를 뿌렸습니다.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으며, 그가 들어가는 것은 일년에 한 번만 이 특별한 날에 허락되었습니다. 그 피는 공홀의 자리를 덮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들을 위하여 속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와 꼭 같이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위해 공홀의 자리 위에 피가 뿌려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속죄(atonement)**란 말은 "**하나됨(at-one-ment)**",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됨(being made at one with God)"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목적 전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되돌려져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의미인 **화해**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하기 때문이 아니며, 헌금을 하기 때문이나 침례를 받기 때문이나 교회 가입, 기도, 성경 읽기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되돌려져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속죄-은 이미 드러진 희생물 때문입니다. 이 희생물이 드러진 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그분의 피를 흘리신 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방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을 유대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들을 여러 번 들어서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으며, 우리가 살펴 보지 못한 다른 많은 것들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각각은 하나의 사진-어느 날 오실 메시아의 예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의 사진들, 이 예시가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29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_____]의 [_____]을 보라." 에서 침례자 요한은 자기가 선포하는 말을 들으러 모인 무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이런 말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6 에도 동일한 말들이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불렀을까요?

침례자 요한은 유대인이었으며, 자기가 이런 말들을 사용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메시아라는 것을 금방 알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입히기 위해 동물이 죽은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삭이 살기 위해 수양이 죽어야 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죄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물들이 죽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레위기 16 장**과 **출애굽기 12 장**과 수많은 다른 장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에서 동물은 사진인데, 그러나 그 동물이 지불 (죄의 대가 지불)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진이 가리키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실 바로 그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된 동물은 예수님의 오심을 묘사합니다. 이것이 요한이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드릴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십시오.**"라고 할 때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 장을 보십시오. 당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구절들은 아주 자세하게 지나갈 것입니다.

1 절 -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_____ 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율법은 사람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만들어 주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해마다 드린 희생물들이 사람들을 결코 완전하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게 하지 못하였다고 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해마다 속죄일에 동일한 희생물을 다시금 드렸습니다. 왜

일까요? 그 희생물은 결코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2 절 -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속죄일에 드리는 희생물이 죄를 제거할 수 없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만일 그것이 죄를 제거할 수 있었다면, 대제사장이 다음 해에 다시 희생물을 드렸습니까? 죄들이 사라졌다면, 사라져서 없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희생물 드리는 것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희생물이 죄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 절 -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___ 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 1 절이 말하듯이 황소와 염소의 피는 그림자 이상 아무 것도 아니었으므로, 동물들의 피가 죄를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0 절 -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번 영원히 드리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예수님께서서는 몇 번이나 죽으셨습니까? 한 번입니다. 왜 한 번이지요? 그것이 필요한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에 대해 한 번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만일 계수님께서 또 다시 거듭해서 죽으시는 일을 계속하셔야 했다면, 그 이유는 죄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실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희생물들이 모두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단지 사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

수님의 죽음은 온 세상의 모든 죄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할 만큼 충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한 번 죽으셨습니다.

11-12 절 -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_____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____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예수님께서서는 한 번만 죽으시면 되었습니다. 한 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복음**-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란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셔서 인간의 죄에 대해 영원히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12 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세상의 죄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번 죽으시기만 하면 그것으로 다 되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일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만나시는 성전의 안쪽 방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위해 안쪽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일 년에 한 번 대제사장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도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에 의해 그 거룩한 곳-하나님 아버지의 왕좌가 있는 바로 그 방-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거기에 들어가시기 위해 동물을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 자신의 피에 의해 바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왕좌가 있는 그 방에 들어갈 권리를 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9:13-14 을 주목하십시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_____ 을 접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_____ 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희생물을 드리고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며, 비록 그 희생물들이 자기들의 죄들을 완전히 씻어내어 줄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확실히 제거하는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권능이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희생물은 보증과 꼭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 청구서 대금을 지불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은행에서 노트에 사인을 해 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다음 해에 지불 기일이 되면, 은행에 가서 다시 노트에 사인을 해 줍니다. 해마다 당신

은 "내 청구서 대금을 지불할 것입니다."라고 거기에 사인하는 것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은행에 가서 돈을 내려 놓고 당신 청구서에 "전액 지불 필"이라는 도장을 받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런 후에는 청구서가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다시 은행으로 되돌아가서, 청구서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종이에 사인하는 일을 계속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희생물들은 사람들의 죄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들이 "내 죄들에 대해 대가가 지불될 겁니다. 그 일은 처리될 것입니다. 책들에서 죄들이 확실히 지워질 것입니다. 조만간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지만, 그 일이 일어날 것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 죄에 대해 한 번에 모두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9:15 을 보십시오.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많은 내용이 포함된 글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죄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 문제를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처리를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중재자, 중개자이십니다.

옛 상속 언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원할 경우, "신용"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청구서가 조만간 지불될 것이지만, 아직 지불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의 새 상속 언약, 그분의 새 언약, 우리들의 죄들에 대한 그분의 대가 지불은 그들의 죄들에 대한 대가 지불도 되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9:24-28** 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또 다시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번만 죽으시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옛 상속 언약 성도들의 죄들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

불하신 것이 아니라,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의 죄들에 대해서도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온 세상의 모든 죄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당시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과 마지막 때까지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들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번만 죽으시면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오른 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 *전액 지불 필도장*이 찍힌 청구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저기 저 사람이 지금 제가 자기를 천국으로 들여 보내 줄 것이라고 오직 저만 의지하고 있는 것 보시죠? 아버지, 그를 위해 제가 이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도 오직 저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 단념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스스로의 방법으로 여기에 들어 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는 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도 제 사람들 중의 하나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대한 좋은 소식-복음-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과 저는 스스로 천국에 갈수 없지만,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추

예수님께서 자격을 갖추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요한복음 5:31-39 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다섯 가지 증거들**을 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누구인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나 그것을 나 혼자서만 말한다면 너희는 내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내가 서서 대담하고도 무모한 말을 하는데, 내 말에 동의하는 증인들이 없다면, 당신은 아마도 내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죄들을 위해 온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침례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으며 무리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셋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당신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소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리 저는 자를 걷게 하셨습니다. 병어리를 말하게 하였습니다. 귀먹은 자를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또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주장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신 메시아입니다.

넷째 증거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계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으며,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그것을 공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메시아이셨던 **다섯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기록들입니다. 이 증거는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 그대로 살펴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는-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해 주며 그분이 메시아라고 확인해 주는-수백 개의 성경 기록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37 가지** 다른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서 성취되었으며, 그분이 진정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런 예언들 중 하나가 **미가서 5:2**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메시아가 베들레헬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칙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조세 등록을 하러 베들레헬으로 올라가야 하였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헬에 갔

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 칙령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서는 그 마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한 꼭 그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사야 7:14 은 메시아가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처녀가 어떻게 처녀이면서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개입 외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 예언은 마리아의 생애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까지 그녀는 성적으로 남자를 몰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살펴볼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보통 사람이셨을 리가 결코 없습니다. 그분의 주장대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께서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해 말해 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3:7, 9, 12 절**은 그런 구절들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범법자 중의 하나로 계수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 한 쪽에 도둑이 있었다고 말해 줍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정확히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부자와 무덤을 함께할 것이라고도 예언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에 있었습

니까? 그 무덤은 빌린 것이었이었는데 아주 부유한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습니다.

이사야 53:7 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같았다고** 합니다. 어린양은 입을 닫고 도살장으로 갑니다. 그것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유순하고 잠잠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의 십자가로 가실 때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구출하도록 천사들을 부르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부당하게 재판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소란피우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수치와 모욕을 참으시고 잠잠히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과 삶에 대한 온갖 예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예언들이 어떤 것들인지 살펴 보고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서 문자 그대로 모두 성취된 것을 보면, 우리는 그분은 진정으로 메시아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요건들에 적합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자격 요건들을 충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사람이 이 모든 예언들이 실현되도록 계획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인간의 죄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셨기 때문에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대신하심

고린도후서 5:21 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_____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와 저의 죄를 가져 가셔서 그리스도 위에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죄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죄인인 당신과 제가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가져 가셨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자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가령, 당신은 은행에 백만 달러가 있고, 저는 제 계좌의 잔액이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당신은 저를 도와주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은행 계좌를 서로 맞바꿉니다. 우리는 은행으로 가서 모든 해당 서류들에 서명을 하고서 제가 당신의 은행 계좌를 인수하고 당신은 제 은행 계좌를 인수합니다. 이제 저는 나가서 뭐든지 원하는 대로 돈을 쓸 수 있으며, 당신은 청구 대금을 갚기 위해 나가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이너스 계좌-우리의 죄에 대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필요-를 가지시고, 예수님의 의의 플러스 계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자리를 바꿨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대가를 지불

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대신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13 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_____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구속(救贖, redeem)이란 말은 되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경매대에서 노예를 사려고 노예 시장에 갔을 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노예를 자유롭게 해 주기 위해서 되살 수 있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저주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받은 정죄를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고스란히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죄의 경매대에서 되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되사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까? 성경 기록을 성취하고 계신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죄들과 저의 죄들을 을 위해 저주받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있으신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가고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저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8-11** 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_____
 _____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
 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
 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대 화해하게 된 자로
 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
 이라.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
 미암아 이제 _____ 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위의 구절들을 상세하게 몇 개로 나누어 봅시다. **당당히 제시하
 시느니라**란 말은 거창한 말이지만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하
 하나님께서 보여 주셨다**, 즉, **나타내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서는 우리 대신 죽도록, 우리를 **대신하시는 분이** 되도록 예수그
 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
 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즉, 바르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분의 피를 통하여서
 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려고 우
 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들과 저의 죄들을 위
 해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 즉, 다가올 그 진노로부터 구출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atonement)** 를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됨(at one with God)**"을 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됨(at one with God)**"을 얻습니다. 위의 구절들에서 중간 부분에 있는 "**이는 (만일)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화해하게 되었을진대(되었다면)**"란 말을 주목하십시오. 여기에 키(key)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 두 그룹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모든 죄들을 위해 죽으셨으면, 어떻게 여전히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화해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만일)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화해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화해하게 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건부 약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충족시켜져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조차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런 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까? 회개와 믿음으로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다음 과에서 다룰 주제입니다.